

■ 특특뉴스

물가 올라도 맥주 주세 안 올린다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물가연동제가 주류 물가에 미친 영향을 들여다보는 한편, 향후 적정하게 주류 세금 부담을 조정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물가가 올라도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세금을 일정 기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아예 정해진 주기 없이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올리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한다.

‘보양식 대체’ 흑염소 값 2년새 76% 꺾충

5년전 ‘염소파동’ 비교 8배 상승

“수요 줄고 사육농가 늘까 불안”

정부 차원 가격안정 대책 필요

“500원, 1,000원 올려서는 수지타산이 안맞아 4,000원 올렸죠. 손님이 딱 끊기긴 했어요 원가보다 싸게 팔 순 없으니...”

광산구 월곡동에서 흑염소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박 모씨(67)는 13일 “흑염소값이 너무 올라 장사가 안된다. 지난해 벌어들인 돈으로 적자를 해결해가며 살아간다”고 토로했다.

최근 흑염소값 폭등에 맞춰 흑염소탕 한그릇 가격을 4,000원 올렸더니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손님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 메뉴에 추어탕과 생태탕 등을 추가했지만 한 번 떠나간 손님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박 씨는 “3년 전만 하더라도 kg당 1만원이면 살 수 있던 흑염소를 지금은 3만8,000원 줘야 한다. 도저히 가격을 안올릴 수 있는데 손님들은 불만을 터뜨린다”며 “특히 경찰 등 공무원들도 많이 왔는데 가격이 오르면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울상을 지었다.

보양식 대체제로 흑염소가 주목받으면서 흑염소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다.

한국흑염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식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세우 시세는 kg당 2만1,500원으로 전년동월(1만8,000원) 대비 19.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비거세와 암염소도 각각 kg당

3,000원(18.7%) 오른 1만 9,000원에 거래됐다.

염소 자체 가격도 뛰고 있다. 생후 3개월 된 암염소를 뜻하는 ‘젓떡기’는 이날 kg당 3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불과 16개월 전(1만7,000원)보다 76% 오른 가격이다.

약 12개월 사육한 염소 한 마리 무게가 50~65kg인 점을 감안하면 염소 한 마리 가격은 약 120만원이고 도축된 염소는 20% 가량 비싸다.

5년 전 ‘염소파동’ 당시 마리당 약 1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오른 것이다.

염소값 폭등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고 개고기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발생했다. 조리법과 맛이 비슷해 수요는 상승했지만 국내 사육 두수는 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염소 사육 두수는 지난 2017년 39만 3,351마리에서 2019년 57만2,305마리까지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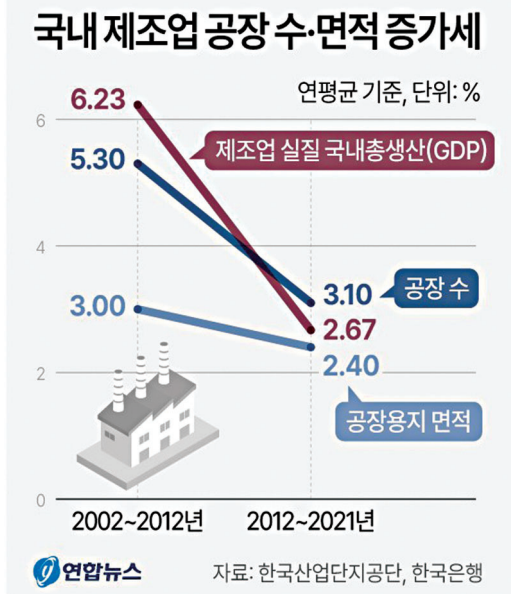
솟았다. 이후 2021년에는 다시 44만3,000마리로 약 23% 급감했다. 염소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했던 2018년 ‘염소 파동’ 당시 정부가 폐업 농사를 지원하면서 현재까지 급감한 두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육 농가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높은 가격이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며 단기 이익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사육 농가가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흑염소협회관계자는 “과거와 같이 염소값이 오르니 염소 사육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지고 있다. 무분별하게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며 “염소값 폭락때도 버티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농가들은 불안해 하는데 정부가 염소도 소나 돼지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 그래픽 경제



제조업공장 증가세 매년 2%대 그쳐

국내 제조업 공장 수와 공장용지 면적의 증가세가 최근 10년간 눈에 띄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최근 제조업 입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제조업 공장 수는 20만2,146개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국내 공장 수는 2015년까지 매년 3~5% 증가했지만 2016년부터는 주로 2%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농협광주본부는 13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직원과 시민들에게 우리쌀로 만든 백설기 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백설기와 장미꽃으로 사랑 전하세요”

농협 광주본부, 떡 나눔행사

농협광주본부는 13일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3월14일 백설기데이를 널리 알리고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우리쌀로 만든 백설기 떡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고성신 농

협광주본부장, 이정선 교육감, 박내춘 농협은행 본부장, 북광주농협 구상봉 조합장, 통합RPC 이선화 대표이사, 한제규 노조지역위원장 및 교육청, 광주본부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화이트데이 사랑 대신 하얀 쌀로 빚어 건강한 음식인 백설기떡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백설기데이를 홍보했다.

또한 소비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사랑의 장미꽃 전달과 광주대표 브랜드인 빛찬들 쌀 홍보 및 쌀 소비촉진 운동도 함께 전개했다.

고성신 본부장은 “식생활 변화와 대체 식품으로 쌀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쌀 산업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농협은 백설기데이와 가래떡데이 등 다양한 우리쌀 소비촉진 운동을 펼쳐 건강한 먹거리 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3년 만에 직원 53명 채용

쌍용차, 100대 1 경쟁률

쌍용차는 3년 만에 직원 53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쌍용차는 2020년 이후 매각 절차에 돌입하면서 신규 채용을 하지 못했었다.

쌍용차는 채용 인력 대다수가 미래차 연구·개발(R&D)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모집 공고에 5,000명이 넘는 인자가 지원하며 약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는 채용된 직원들을 오는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하는 서울모빌리티쇼에 현장 스태프로도 투입할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미래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지속해서 충원할 것”이라며 “미래차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정통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브랜드 고유 헤리티지를 계승·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KG그룹에 인수된 쌍용차는 신규 인력 충원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친환경차와 미래차 관련 핵심 기술 연구를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www.518run.com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23회

5·18 마라톤대회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다함께 땀시다!

일시 2023. 5. 20 (토) 집결 08:00
출발 08:30

장소 광주 승촌공원 운동장 (승촌보 내)

종목및참가비 5.18km 10,000원
10km, 하프코스 30,000원

접수기간 ~ 2023년 4월 21일(금) ★현재접수중★

접수방법 전화, 팩스, 518run.com, 0518run@hanmail.net

문의 TEL (062) 720-1099, FAX (062) 720-1020

카카오톡 ID : jndnnews

주최 518기념재단 전남매일